

##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 문화\*

신국원\*\*

###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영성문화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망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근대 이성주의 문화의 쇠퇴는 새로운 문화의 토대를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불러왔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 부흥운동뿐 아니라 심리학과 사회학, 경영학, 예술 분야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성 복원 운동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때로는 신비주의적이며 종교혼합주의적 경향에다 인본주의적 요소까지 부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경적 영성이 오늘의 영성문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려 한다. 아울러 왜 영성문화 속에서 성경적 영성이해에 기초한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인지를 논하려한다.

**주제어:** 영성, 영성문화, 종교, 전인적, 영적 분별력, 영성개발

---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총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2014년 10월 13일 접수, 12월 15일 최종수정, 12월 16일 게재확정

## I. 서론

이성과 합리성의 기초위에 세워진 근대문화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지금 대안적 토대를 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영성(靈性, spirituality)의 복원을 통해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에는 전통적 종교문화의 재황에서부터 뉴에이지 운동과 포스트모던 해체주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망라되어 있다. 이성과 합리성의 근대적 세계관이 물질주의나 자연주의를 낳았던 것에 비해 초월과 초자연의 세계를 인정하고 영성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본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이며 불건전한 신비주의적 요소들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성의 복귀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나 비판보다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 문화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바르게 분별할 기초 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성경적 영성이 이 시대의 영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하여 참된 영성개발이 영성문화에 대한 대안임을 보이려 한다.

## II. 영성(靈性, spirituality)의 귀환

오늘날 사회문화 전반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성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전세기의 예측과 달리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주의해 보면 “초월의 신호”와 “천사의 소문”이 사면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Berger, 1969=김쾌상 역, 1979: 9-50). 그의 주장에 화답하듯 근래에 다양한 학문들에서 영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학에서 “일터 영성”(workplace spirituality)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Giacalone and Jurkiewicz, 2010: 3-26; 황호찬, 2006: 75-106). 마케팅 권위자 필립 코틀러는 “소비자 영혼에 호소”하는 경영을 설파한다. 이젠 이성적 설득의 마케팅 1.0이나 디자인과 차별성을 강조해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2.0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마케팅 3.0의 목표는 “영적 호소력”이다 (Kotler, 2010=안진환 역, 2010: 21-22, 68-70). 이쯤

되면 경영학이 종교와 신학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기독교경영연구원도 이런 추세에 부응해 <경영의 영성>(spirituality in management)을 주제로 연례 학술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사회학이나 경영학이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오늘날 “영혼”이나 “영성”은 신학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영성을 복원하려는 움직임들은 영성을 대체로 개인의 궁극적 관심이나 궁극적 본질의 세계와 관계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또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능력이나 초월적인 신의 세계와 삶의 근원에의 소통능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공감, 사랑, 용서, 책임, 배려, 조화와 같은 덕목을 영성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Tart, 1975: 4). 근래엔 영적 평안함, 초월, 영성개발, 영적 자의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추가되기도 한다 (Stroudemire, Batman, and Temple, 1986: 577-578). 번영과 안정과 지배에 관심 쏟는 물질주의 극복, 정신적 삶의 질 향상, 문화적 창조성, 사회적 평등, 자유 갈망,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적극성, 환경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도 꼽힌다 (Inglehart, 2008: 138, 1971: 991-1017).

이처럼 오늘날 영성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켜 삶의 심연과 접속하여 넓고 깊은 세계경험에 도달하려는 노력도 포함되고 있다 (Kapusinski and Masters, 2010: 191-205). 사회학이나 경영학 같은 학문에서 영성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영성의 귀환이 논제가 아니라 실제상황임을 보여준다. 얼마 전까지도 영성은 학계에서 금기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 사회문화 전반에 영성 담론이 대유행이다. 이것은 철학과 과학이 지난 여러 세기에 걸쳐 문화와 사회 전반에 행사해온 지배력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 (Brand and Chaplin, 1999: 16=김유리, 오윤성 역, 2004: 39). 영성은 이성이 못 다루는 초월적 영역에 접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여 이를 통해 기력이 다한 문화에 활로가 열릴 수 있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기술문명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강해질 것이다. 근래에 학문분야 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예술은 말과 개념이 포착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 이를 통해 삶의 근원에 접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Guthrie, 2011: 2-12). 이런 기대 또한 이성주의 문화가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계몽사상의 인본주의적 정서가 강하게 결실을 맺은 19세기에 오귀스트 콩트(August Comte)와 같은 사회학자는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관측은 대

체로 20세기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막스 베버(Marx Weber) 같은 이는 과학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Weber, 1963: 220-228). 실제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종교는 쇠퇴하는 대신 확장되고 있다. 근대인은 초월과 영성에 대한 불신을 넘어 아예 감지 불능에 빠졌다는 엘리엇(T. S. Eliot)의 한탄은 더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한다(Brooker and Bentley, 1990: 124). 영성과 종교는 예측과 달리 여전히 삶에 중요하고 인간사의 보편적 요소이다(Hill and Gary S. Smith, 2010: 171). 세속화로 청소된 문화에 귀신들이 떼 지어 돌아오는 모양새이다.

사실 영성에 관한 관심은 역사상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고대문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로 영들의 세계였다. 콩트도 인류문화의 첫단계는 미신적 종교와 사제의 세계였다고 했다. 서양의 고전철학시대에도 영성은 현실의 가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겼다. 그러나 영성은 이성과 분리되지 않았다. 플라톤의 세계관이 보여주듯 인간을 영적 세계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 것은 이성이었다. 그것은 철학적 훈련이 정신의 본향인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보는 그의 인식론에서 드러난다.<sup>1)</sup> 이 사상은 스토의 철학자들을 넘어서 중세에도 지속되었다. 물론 중세 수도원 전통과 스콜라 철학자들은 영성을 이성과 구분하고 영성을 이성 위에 두긴 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도 이성이 감성이나 의지보다 훨씬 영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17세기 이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근대에 들어 이성의 자기 제한과 소외로 인해 영성과 연관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육체)의 이분법을 도입하여 정신세계를 물리적 우주와 분리시킨 것이 분기점이었다. 세계의 절반을 영성으로부터 독립시켜 그 영향력을 배제한 것이다. 자연세계는 비인격적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죽은 물질이 되었다. 영성은 신비의 장으로 자연계로부터 소외되었다. 흄과 칸트가 이성의 능력의 범위를 경험적 지각과 현상의 세계에 국한시키면서 사정은 더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영성의 세계는 불가지의 영역으로 취급되어 학문적 논의와 공공의 장으로부터 배제되어 문화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한편 지각가능한 현상세계에 대한 분석적 능력으로 제한된 이성이 문화의 토대를 제공할 능력을 의심받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성이 데카르트가 희망했던 것처럼 지식의 확실성을 정립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니체는 이성이 감성이나 의지의 노예라고 보고 이성의 자율성을 부정했다. 마

1) 참고, 플라톤, 『파이드로스』 § 34-37, 참고, 『국가』의 7권 동굴의 비유나 『메논』의 인간관을 보라.

르크스는 문화가 경제체제의 투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관념세계의 자율성을 파괴했다. 프로이트의 심층심리학은 이성의 역할이 무의식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가 근대를 위기에 빠뜨리고 포스트모던의 길을 연 “의심의 대가”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의 복귀는 바로 문화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이성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를 찾는 시대적 필요에서 비롯된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염두에 둘 때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성과 과학은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주의는 강력한 문화적 동인으로 남아있다. 물질주의의 문화화배력도 여전히 강력하다. 이러한 상황에 지친 사회와 문화가 영성의 복귀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일시적 반동이 아니다. 이는 참된 영성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의 표출이다.

### III. 영성과 종교

물론 인류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은 영성의 참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결코 경영학이나 마케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이 함양하고자 애쓰는 공감, 사랑, 용서, 배려, 책임, 조화로 대치될 수 없다. 예술적 감성을 통해 초자연적 실체에 접하고 초월의 경험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영성의 근원인 종교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종교를 떠나서 삶의 강력한 위로나 황홀경 그리고 도덕적 확실성을 얻을 수단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의 근거에는 종교 이외에 딱히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Baumeister, 1991: 183).

물론 제임스 헌터(James Hunter) 같은 사회학자의 말처럼 제도화된 종교만 보면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 규모나 통계수치와는 상관 없이 종교는 결코 과학과 이성주의 계몽에 밀려 소멸하지 않았다. 신앙적 욕구와 종교적 필요는 개인화(privatization)와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유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Hunter, 1983: 14). 오늘의 영성이 개인주의적이며 탈제도화 특성을 보이는 것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상황은 영성문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제도화된 종교는 초월적이며 궁극적 존재인 신과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종교는 예배와 기도, 명상을 통해 본질의 세계를 경험하고 삶의 근원과 신에게 접속하는 일에 치중한다 (Sheldrake, 2007: 1-2; Waaijman, 2002: 1). 예배를 비롯한 성스러운 의식은 자아나 세상적 삶과 관심을 넘어서는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제도적 종교를 오늘날 폭넓게 정의된 영성과 비교하자면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기구와 외향적 관습을 따라 행위로 나타나는 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영성은 보다 넓은 초자연적이며 초월적 세계에 관심을 둔다. 종교가 관찰 가능하며 측정가능한 정통적이며 객관적인 면을 강조하는 한편 영성은 주관적이고 기능적인 정서적 지향과 내면적 조율되어 있다. 종교가 권위주의적이며 선과 악을 교리적으로 구분해 강조한다면 영성은 조화와 통합에 관심이 많고 교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성은 통합적 시각을 통해서 넓은 세계관의 개발과 진정성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삶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쓴다. 삶에 대한 책임감,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과 일상에서의 신적 임재의식, 내적 평화와 공동체에 대한 강한 관심과 사회정의에 대한 의식도 강조된다. 아울러 덕스럽게 살려는 의지나 자아실현, 이기심을 넘어 타인의 향상을 위한 관심과 기여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의 증가도 영성문화의 특징으로 꼽힌다 (Giacalone and Jurkiewicz, 2010: 15).

종교사회학자인 로버트 워스나우(Robert Wuthnow)는 이런 차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정주영성(dwelling spirituality)과 탐사영성(seeking spiritua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정주영성은 “신이 우주 내에 특정 장소를 차지하고 인간이 또한 거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에 정주(habitation)함으로써 안정을 누리는데 관심을 둔다. 탐사영성은 신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강화시킬 거룩한 순간을 찾는다. 하지만 이 순간들은 유동적이므로 영역보다는 조망(vista)을 찾아 다양한 영성의 의미를 계속 저울질하는 협상(negotiation)을 특징으로 한다 (Wuthnow, 1998: 4-5). 반면에 안정을 강조하는 정주영성이 성숙을 구분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탐사영성이 신앙을 탐구의 과정으로 보기에 성숙의 구분이나 공동체적 제약이 약하며 개인적 자유에 무게를 실는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정주영성은 안정에, 탐사영성은 개인적 자유에 강조점을 둘 뿐 기성 종교를 정주영성으로 보거나 오늘의 영성추구를 탐사영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위스나우의 지적처럼 오늘의 영성문화는 구조화된 종교의 일부이건 개인화된 경우에서도 특히 사회문화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신비적이며 초월적 요소를 통해 문화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일에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어 기독교 영성운동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을 신앙의 고취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과 관련지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기독교 생명문화 운동이나 문화예술 활성화에 적극적인 경우가 그렇다.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문화선교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나 예배갱신과 문화의 변혁을 힘쓰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영성문화의 이런 경향은 문화변혁을 위한 세계관적 접근의 타당성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영성이 삶의 토대이며 문화사회적 갈등의 뿌리가 세계관의 충돌에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기독교와 특히 개혁신주의 전통에서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온 바이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12:2)고 한 사도바울로부터 문화가 영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갈파하고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속한 문화가 어떤 영성에 기초해 있는지를 분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변 문화의 영성에 물들지 않아야 할 것을 역설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잘 알려진 두왕국 이론에서 모든 문화에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자기사랑이 깔려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Augustine, 1949: 47-48). 요한 칼빈 역시 신앙은 좁은 의미에서 종교뿐 아니라 삶 전반의 기초라고 파악했으며 거기에는 두 가지 영성 또는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Calvin, 1559: 4.20.1-2, 8, 14). 아브라함 카이퍼도 칼빈의 사회문화적 통찰에로의 복귀가 계몽주의적 인본주의를 대적할 수 있는 기초라고 파악한다. 그것이 그가 이끌었던 신칼빈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중요한 초석역할을 하는 종교적 또는 원리적 대립(antithesis)의 개념이다 (Kuyper, 1961: 44-45, 79, 130-132, 155).

이런 통찰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것은 신칼빈주의 전통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논의를 본격화시킨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이다. 그는 세계의 구조가 창조질서이자 우주법 체계인 15개의 양상들이 가장 위에 자리한 신앙적 양상을 통해 초월의 세계에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세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양상 중 영성이 가장 높은 또는 깊은 차원에 위치하여 삶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본 것이다 (Dooyeweerd, 2012: 24). 이 때 시공간적 세계와 초월 세계를 연결지우는 것은 인격의 중심인 마음이다. 마음의 방향은 곧 종교다. 이런 의미의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대적하는 두

종류뿐이다. 신앙은 시공간적 세계의 일부이지만 초월의 세계로 열린 접촉점이자 열린 창문으로 문화적 양상들을 통합한다. 도예베르트는 인간의 특성을 세계 즉 시공간적 우주가 그 속에서 “종교적 뿌리 즉 의미의 피조물적 충만을 발견”하게 되는 아르키메데스 포인트라고 했다. 인간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펼쳐가면서 이뤄야 할 즉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은 종교적 본성에 기초하여 주어졌다. 문화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성에 기초를 두고 명해졌고 그 위에서만 바로 행해질 수 있는 활동이다.

흥미로운 것은 도예베르트의 이러한 관점은 신정통신학자들의 문화이해에서도 지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폴 티리히(Paul Tillich)가 종교를 삶의 다양한 양상들보다 훨씬 더 심층부에 위치해 궁극적 관심에 간여하는 깊음의 차원(the dimension of depth)이라고 주장한 것이 좋은 예이다.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종교와 영성을 삶의 한 영역 또는 기능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Tillich, 1959: 42-47). 이런 관점에서는 영성을 삶의 다른 영역이나 기능과 대립되는 내면적이며 사적이고 피안 또는 신비적 세계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런 관점은 마음과 종교가 문화의 초월적 기초임을 분명히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이 문화적 양상들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영성과 종교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기초임을 주장한 것이다.

#### IV. 성경적 영성 이해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성주의와 물질주의가 지배하던 문화 속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영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문화 전반에서 일어나 외연이 넓게 확장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영성에 대한 정의가 너무 다양하고 혼란스러워 개념화하는 것 자체가 간단치 않다. 영적의식이나 추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것도 영성에 대한 학문적 검토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경에 기초하여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되어야 할 것을 요청한다.

성경은 영성의 기초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인간의 영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영적 존재로 만드심에서 비롯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 2:7) 인간은 하나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어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인 영성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 3:11). 칼빈은 이를 신성의 감각(sensus divinitatis)이요 종교의 씨앗(semen religionis)이라고 불렀다 (Calvin, 1559: 1.1.1-1.5.15; Helm, 1998: 87 - 107).

따라서 영성을 인간의 자율적 능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영성은 특별한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한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에 의존한다. 영성은 막연한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이거나 자율적 개인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책임(responsiveness/responsibility)이 본질이다. 칼빈을 비롯하여 개혁주의자들은 중세적 전통과 근래에 사용되는 영성이라는 말 대신 경건(pietas)이나 거룩함(holiness)을 사용한 것은 그 때문이다. 특히 칼빈은 경건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면서 거기에는 참된 지식에서 비롯되는 예배와 구원하는 믿음, 경외심과 순종 그리고 사랑이 포함된다고 했다 (Calvin, 1559: 1.9; Richard, 1974: 100-101).

성경은 영성을 물질적 세상과 구별은 하되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초월의 영이시나 세상과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엡 4:6, 골 3:11, 고전 15:28).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며 창조에 참여하셨다 (창 1:2). 성령은 물질세계에 들어와 생명을 주신다. 흙으로 빚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매 “생령”(living being)이 되었다 (창 2:7).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하셨다. 불과 바람 형태로 나타나며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신 오순절의 역사는 영성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적 영성은 이처럼 물성, 감성, 이성과 대립 구도를 만들지 않는다. 영성은 피조계 전체에 관계한다. 물질은 창조주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선언하신 선한 피조물이다.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인 육체부활신앙도 물질의 선함을 확증한다.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땅 역시 물질적 세계이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만 아니라 만물이 온전케 구원될 날을 소망한다.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은 물질세계의 선함과 정당성을 주장하

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 가장 물질적인 종교 (the most avowedly materialistic of all the great religions)라고까지 했다 (Temple, 1934: 478).

기독교는 물질을 그림자나 허상으로 보는 헬라사상이나 불교와는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진다. 기독교 영성은 물질과 육체를 덜 중요한 무엇으로 보지도 않는다. 몸은 그것을 통해 주위환경을 보고 만지며 느끼며 이해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간 존재의 초점”이다. 몸을 통해서 의식이 표명되고 의지와 선택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역시 몸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손과 발로 주를 섬긴다. 물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Willard, 1998: 29).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복음의 핵심진리이다. 이를 부정하는 가현론의 이단성은 요한서신에서부터 확립(요일 4:2-3)된 사실이다.

성경의 영성과 지금 널리 퍼져있는 영성이해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과 특히 영감(靈感, inspiration, Θεόπνευστος 딤후 3:16-17)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교 전통에서 영감은 황홀경과 무의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흔히 광기와 흡사한 현상과 더불어 초인적 능력을 입는 일을 말한다. 소크라테스가 낭송시인과 영감에 관해 벌이는 논의를 담은 대화편인 『이온』에서 보듯이 고대 희랍에 있어서 영감은 시인을 지배하는 신들림과 홀림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성령의 영감은 유기적(有機的, organic)이다. 그것은 인간을 말살하지 않고 오히려 활발하게 만드는 전인격적 감화 작용이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위해 저자를 기계적인 필기도구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셨다 (Berkhof, 1996: 153-156). 영감은 신비한 기적이지만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자연을 거슬리거나 무력화시키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심(kenosis)교리는 성령께서 일하심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할 또 다른 열쇠이다. 성령도 비우심을 통해 인간 속으로 오시기에 영감은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지배로 작용하지 않는다 (Thiselton, 1995: 43, 161).

성령께서 유기적 방식으로 감화하신다는 또 다른 예는 성막 건축을 책임 맡은 오홀리압과 브사렐에게 아름다움의 재주를 가르침(출 36:1-38)이다. 그들의 창조성과 예술성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고도화되었다. 성령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지배와 통제

가 아니라 인격적인 감화와 순종을 통한 성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의 변혁적 역사는 개인의 중생과 성화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혁신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의 기적 대부분이 자연적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자연을 거슬리거나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Lewis, 1947: 60, 127=이종태 역, 2008: 115, 250).

자연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초자연과 자연적 세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영성이 해는 모든 이원론적 사고를 배격한다. 이런 관점은 개혁주의 세계관의 기초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직업의 성스러움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 개혁자들은 자연과 은총의 중세적 이원론의 폐해가 구원론뿐 아니라 포괄적인 세계관적 결함을 야기함을 직시했다. 그들은 일과 노동을 가능한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가 만드신 세상과 이웃을 이롭게 하는 활동임을 강조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모든 직업이 영적이며 거룩한 소명이라고 가르쳤다 (McGrath, 1990: 245). 이것은 개혁주의 특유의 직업윤리의 기초인 하나님의 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의 근거이다 (Ryken, 1995: 106). 이 귀한 통찰이 파괴된 것은 계몽주의 인본사상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이란 단지 자연적 삶의 일부로 개인의 성취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부터이다 (Colson and Pearcey, 1999: 389). 일의 영성에 대한 의식의 회복은 이로 인해 사라진 칭지기 신앙과 봉사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가 “영어의 ‘영적’(spiritual)이라는 뜻의 단어를 독일어의 ‘정신적’(geistlich)이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해서 더없이 위험하고 반기독교적인 오류를 끌어들이는” 점을 강력히 비판한 씨 에스 루이스(C.S. Lewis)는 성경에서 “영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됨을 강조한다 (Lewis, 2008: 45).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바쳐지고 “주께 하듯” 할 때 영적인 일이 된다는 것이다. 즉 자연적인 활동을 “초자연적 목적들”을 위해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뵈옵는 일과 궁극적 연관성이 있는지”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신 바 욕구에 충실히 집중하는 것이 “겸손한 처사”라고 했다 (Lewis, 2008: 44-47). 루이스의 말처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무슨 일이나 창조주가 허락하신 본연에 충실할 때 우리는 영적이 된다. 영성을 신비나 이교적 뉴에이지와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 일상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참된 영성은

삶의 궁극적 관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 V. 영성문화에 대한 분별

영성이 혼잡해진 시대에 영을 분별하는 일은 중요하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모두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다 (요일 4:1). 바울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것을 명한다 (롬 12:2). 오늘날 영성의 유행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불교 승려들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붐을 일으키고 절에서 수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템플스테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천주교에서 발원한 “트레스 디아스”(Tres Dias)류의 영성모임도 마찬가지다. 개신교 일각에서도 ‘레노바레’(Renovaré) 같은 운동이 유행한다. 하지만 오늘날 영성의 과잉은 조심스럽다. 이성을 피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다. 하지만 호랑이 피하다 귀신을 만난다면 더욱 무서운 일이다. 지금처럼 온갖 영이 춤추는 시대일수록 영적 분별력이 요청된다.

실제로 오늘날 영성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다. 특히 정신활동 자체를 영성으로 간주하는 일은 잘못이다. 제임스 휴스턴(James Houston)은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인본주의와 개인주의 일변도로 치닫는 것을 우려한다 (Houston, 2006: 66-69).<sup>2)</sup> 이런 경향으로 인해 자연과 초자연이 혼동되는 것이 현재 영성문화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요소일 수 있다. 코넬리어스 반틸(Cornelius VanTil)이 강조한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고만다 (Van Til=신국원 역, 1985: 40-49). 이는 지난날 범신론과 관념론적 이성주의 과학에 깔려 있는 이신론이 신을 비인격화한 것에 못지않은 위험을 초래한다. 오늘날의 영성담론에 혼한 범재신론은 신을 지나치게 인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이나 내재적 영성을 고취하는 일을 통해 영성을 친숙한 무엇으로 만들지 몰라도 인성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고 만다. 이 경우 영성은 세상 속에 함몰되어 생의 역동성 정도가 되고 만다. 초월적 영과의 친밀감이 동일성으로 떨어지면 인격

2) James M. Houston, “Principle to Live by,” <http://www.religionandculture.org/index.html>. (검색일 2014. 11.10)

적 관계의 가능성도 소멸되고 만다.

영적 분별력은 세계관의 충돌이 있는 곳에서 가장 필요하다. 오늘의 문화 속에서 세계관의 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장은 예술과 학문이다. 이는 예술과 학문이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피터 버거는 예술과 학문이 제시하는 참된 지식이 일상생활의 궤도를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황홀경” 또는 “탈존(exstasis, ecstasy)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초월의 암시”라 했다(Berger, 1969=김쾌상 역, 1979: 51). 모든 질서창조나 놀이, 희망, 정죄, 유모어에도 그 암시가 들어있다고 했다(Berger, 1969=김쾌상 역, 1979: 89, 100-101, 114, 112, 117). 초월의 암시란 영성의 다름 아니다. 당연시 되는 일상생활의 현실역역 밖으로 내딛게 하는 경험이며 우리를 둘러싼 “신비에 대해 개방”되는 것이며 탈존이고 형이상학적 차원의 회복이기 때문이다(Berger, 1969=김쾌상 역, 1979: 125).

예술과 학문에서 영적 분별력이 왜 중요한지는 그것의 세계관적 기능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예술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표현하는 기능을 통해 세계관 기구 역할을 한다. 예술은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다. 예술의 우선적 목적은 감상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예술이 가장 풍성한 동기를 종교에서 제공” 받았을 뿐 아니라 예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Kuyper, 1961: 146). 윌터스토포르는 예술이 삶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 투영(投影)”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를 상징을 통해 드러내고 형상화한다는 점을 밝혀냈다(Wolterstorff, 1980 A: x, 130-134=신국원 역, 2010: 18-19, 243-251). 학문도 세계투영적 역할에 관여한다. 오늘날 학문과 예술이 문화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 이유는 세계관 기구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학자나 예술가들이 “영적 선도자” 노릇을 하며 문화의 방향을 제시한다(Guthrie, 2011: 2-3).

하지만 학문이나 예술이 종교를 대치할 수는 없다. 학문이나 예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성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물론 문화는 영성의 껍데기 형식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영성이 담겨 있다. 학문과 예술이 한 그루의 나무라면 그것의 형질은 이미 종교라는 씨앗에 들어 있다. 오늘의 잡다한 영성은 통일되지 못하고 분열된 학문과 예술을 통해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 유리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 특히 문화의 외연이 의식주와 같은

일상과 물질적 차원까지 포함한 삶 전체로 확장되면서 문화의 영성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학문과 예술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조망에 기초하여 영적 분별력을 행사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도 매사를 구속적으로 다시 상상하고 새롭게 보는 작업이 바로 영적 분별 작업이다. 영적 분별력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세상을 바르게 보고 느끼는 감수성과 개방성을 요구한다. 사물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은 의미와 상징으로 충만한 세계이다. 학문과 예술의 역할은 사물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해 드러내는 것이다 (Guthrie, 2011: 153). 학문이나 예술은 실제의 “맛”을 보여주고 더 깊은 이해와 체험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한다. 학문과 예술은 이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살롬을 위해 일함을 통해 사명을 수행한다 (Wolterstorff, 1980a: ix, 3, 12-16, 122-155=신국원역, 2010: 18, 38-46, 229-288; Wolterstorff, 1980b: 198-247).

물론 영적 분별력은 학자나 예술가만의 것이 아니다. 영적 분별력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경제생활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가장 세상에 동화되기 쉬운 영역인 경제와 돈에 대해 청지기 정신을 갖추지 못할 경우 바른 영성을 갖춘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조차 영혼에 호소하는 지금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 영성복원운동과 보조를 같이하는 탈물질주의 경향이나 환경운동과 특히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과 같은 문화운동에 대한 바른 분별도 필요하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또 다른 영역은 역시 신앙생활의 핵심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경외와 신비를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복음주의적 경건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대체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왔던 한국교회 예배는 근래에 들어 하이테크 영상매체나 전자악기의 도입과 이른바 열린예배의 형식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전통적 무교의 영성과 결합할 경우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받기 쉽다. 실제로 예배가 성령의 임재 하에 우리 영혼의 깊은 교통이 일어나기보다는 집단적 감정고조에 휩싸일 경우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성문화의 붐 속에 다원주의적 경향으로 민속전례의 영성과 타종교에 대한 혼합주

의 성향이 커지고 있음도 우려된다. 특히 샤머니즘과 불교 그리고 유교의 영성이 지배해온 우리나라의 환경 속에서 혼합주의의 위협은 제례와 같은 부분에서 오랜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 종교간의 대화협력의 정신은 기독교를 혼합주의로 만든다든지 선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불교와 유교 뿐 아니라 세속적 물질주의 같은 다양한 영성이 각축을 벌이는 종교다원사회이다. 다원주의 시대의 영성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자신감으로 무장된 영적 분별력이 더욱 긴요한 시대이다 (Newbigin=홍병룡 역, 2012: 20-23). 참된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 문화를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 VI. 성경적 영성개발

바른 영성(靈性)의 개발이야말로 영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영성개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오늘의 영성문화와 차이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거듭나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인격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율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 감정, 의지, 몸, 사회적 관계, 영혼”이 성령의 감화아래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다 (Willard, 1998: 40).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증거된다.

성경적 영성개발은 자아수양을 통해 초월의 세계로 들어감이나 정신적 자유와 환희를 맛보려는 경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자기능력개발과 인본주의적인 개인적 영성의 주체성을 극대화하려는 경향과 반대된다. 성경적 영성개발의 모델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다. 그의 삶은 어떻게 우리도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영성개발은 우리 육체성을 부정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성의 함양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께 굴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가능하다 (히 5:7).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성개발은 벼락치듯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욕망과 충동에 내맡기는 대신 성령께 순복하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런 훈련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조건이지 속박이 아니다. 긴장과 씨름은 영성개발의 과정

이지 장애나 부작용이 아니다 (Guthrie, 2011: 130). 훈련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영적 씨름은 영성문화가 지향하는 행복하고 따스한 감성의 고양과는 거리가 멀다. 영성을 정신적이고 감정적 평정상태에 국한시키면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영성은 초월과 신비에 대한 갈망(aspiration)만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에 대한 소망(hope)을 갖게 한다. 동시에 지금 여기서 초자연적인 실재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다.

영성개발은 정신적 고양이나 초월의 환희를 경험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의 말처럼 영성개발은 행동의 “쌈”을 파는 일이다. 즉 행동의 근원에 관한 것이다. 영성개발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며 깊은 관계에 이르기 위한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에 근거한다 (Willard, 2002=윤종석 역, 2003: 21-32, 50-63). 성품의 변화는 행동과 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밖으로 드러난다. 영성개발의 목표는 인간과 피조물의 본연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영성개발은 결국 제자도이며 성화의 핵심이다 (Willard, 1998=윤종석 역, 2000: 22). 성경읽기와 기도는 중요하나 그것만으로 제자도가 성취되지 않기에 전인적 훈련이 필요하다. (Willard, 2002=윤종석 역, 2003: 50).

영성개발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도 존중되는 통합적 영성이해에 따른 것이다. 육체가 형성되듯 영성도 형성되며 우리는 영성개발을 통해 특정한 종류의 인간이 되어간다. 타성화되고 고착된 형식적 신앙의 쳇바퀴를 벗어나는 길도 영성개발이다. 영성개발은 신비와 은사체험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영성개발은 성령의 주도하에 인간의 내면세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목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는 전인적인 성숙이다. 이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영성개발은 성령께 순종을 통해 일어나기에 훈련을 필요로 한다.

자연히 성화와 성숙에는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아 만족 추구에서 오랜 자기부정의 훈련을 통한 성숙이 그 방법이다. 물질주의적이며 자아중심적 행복주의에 젖은 오늘의 영성문화는 개인의 자유나 선택을 강조하는 세계관으로 점철되어 있어 순종과 훈련, 이타적인 자세를 핵심으로 하는 성경적 영성개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훈련이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게 한다. 윌라드는 구원이 새로운 삶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지 단지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아님을 강조한다. 영성개발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영성개발에는 육체 연단도 중요하다 (Willard, 1998: 99). 몸이 영적성장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식이나 기도뿐 아니라 독서와 예배, 봉사와 구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Willard, 2006=윤종석 역, 2007: 267). 몸이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에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Willard, 1998: 30). 물론 육체가 영적인 존재로 성숙함에 장애를 초래할 수는 있다. 취약성이나 충동이 우리를 압도하고 질식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영과 육을 포함한 우리 전 존재에 영향을 행사한다. 참된 영성은 물질세계로부터의 탈피가 아니라 변화와 완성(transformation and completion)으로 이끈다. 성령은 초월해 올라감이 아니라 내려와 현실 세계로 뚫고 들어와(in-breaking)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존 오웬(John Owen)의 말처럼 영성의 진실성과 완성도는 몸의 죄악된 성향을 죽임(mortification of sin)에 달렸다 (Owen, 1656: 8, 28-33). 하지만 그것을 몸을 죽이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감화에 대한 순종으로 이룩되는 영성개발은 신적 홀림이나 사로잡음이 아니라 선물과 은사에 비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성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며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감동하여 창조적인 순종으로 이끄는 영성이다. 성령은 옛 것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하심으로 일하신다. 성령의 은사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주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 아울러 성령의 다양한 은사는 개인의 재주를 드러내게 함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다.

영성개발의 전인적 성격과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책임의 요소를 균형있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럴 때만 오늘날 영성문화에서 보는 초월적 명상이나 심리훈련, 또는 환경운동과 같은 사회문화활동을 통한 개인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정신능력과 사회성 개발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어 온 치우친 영성개발 성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즉 영성개발을 수동적으로 은혜를 수여받는 것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성향이나 중세 수도원 전통에서처럼 수덕적(修德的) 경향에 치우침을 막을 수 있다. 제임스 팩커(James Packer)는 영성개발이 자기도취나 자기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치우침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Packer, 2009: 1-35).

또한 영성개발에 있어서 지성을 영성과 대립시키거나 분리함 없이 통합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마크 놀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고 비판했던 지성의 부재가 복음적인 신앙인들과 교회의 큰 약점이기에 그렇다 (Noll, 1995: 3-4=이승학 역, 1996: 13-14). 영성은 지성과 함께 하며 심화된다. 영성개발에서 지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 인간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예민한 감수성으로 열려 있는 태도와도 직결된다. 윌라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사고방식과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Willard, 1998=윤종석 역, 2000: 206). 이는 “경건을 연습하라”(딤후 4:7)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 같은 성숙과 변화를 강조하는 말씀에서 잘 드러난다.

## VII. 결론

이성주의 문화의 쇠퇴 속에 영성문화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경적이며 역사적 기독교 영성이해가 다시 확립되는 것이 매우 긴급하다. 기독교 영성은 인간을 영적이며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런 존재로 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성이해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

이성주의 문화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혼란과 모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기회이지만 위기일 수도 있다. 신비주의나 인본주의 영성문화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영성 회복의 갈망에 부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문화가 영성의 뿌리에서 뻗어나간 나무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Kuyper, 1961: 150). 그것은 영성문화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어떤 토대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영적 기초를 가지지 않는 문화란 없다. 문화적 갈등이란 결국 세계관의 싸움이며 영적 전투이다. 이 시대의 영적 갈망과 문화적 위기는 삶의 전 영역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닿아 있는 바른 영성에 뿌리를 내릴 때에 해소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영성문화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다. 나아가 삶의 전 영역에서 위기에 답할 수 있는 전인적인 영적 능력 개발에 힘쓰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Augustine (426/1949). *The City of God*. Volume II. Edingburgh: T. & T. Clark.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Press.
- Berger, Peter L. (1969). *A Rumor of Angels: Modern Society and the Rediscovery of the Supernatural*. Garden City: Doubleday; 김쾌상 역 (1979). 『현대사회와 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erkhof, Louis (1996). *Systematic Theology*. New Combin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 Brand, Hilary and Adrienne Chaplin (1999). *Art and Soul: Signpost for Christians in the Arts*. Solway. Carlisle. 김유리, 오윤성 역 (2004). 『예술과 영혼』. 서울: IVP.
- Brooker, Jewel Spears and Joseph Bentley (1990). *Reading the Waste Land: Modernism and the Limit of Interpretation*.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Calvin, John (1559/1967).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Colson, Charles and Nancy Pearcey (1999). *How Now Shall We Live?* Wheaton, Tyndale.
- Dooyeweerd, Herman (2012).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Toronto: Paideia Press.
- Helm, Paul (1998). "John Calvin, the *Sensus Divinitatis*, and the noetic effects of sin,"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of Religion*. 43 (2): 87 - 107.
- Hill, Peter C. and Gary S. Smith (2010). "Coming to Terms with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the Workplace," in *Handbook of Workplace Spirituality*.
- Houston, James M. (2006). *Joyful Exiles: Life in Christ on the Dangeous Edge of Things*. Downers Grove: IVP, 2006.
- Hunter, James D. (1983). *American Evangelism: Conservative Religion and the Quandary of Modernit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_\_\_\_\_ (1987). *Evangelicalism: The Coming Gener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acalone, Robert A. and Carole L. Jurkiewicz (2010). "The Science of Workplace Spirituality." in R. A. Giacalone and C. L. Jurkiewicz, eds, *Handbook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2nd edition. New York: M.E. Sharpe, Inc, 3-26.
- Guthrie, Steven R. (2011). *Creator Spirit: The Holy Spirit and The Art of Becoming Human*. Grand Rapids: Baker.
- Inglehart, Ronald F. (2008).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from 1970 to 2006," *Western European Politiccs*, Vol. 31, Nos. 1 - 2.
- Inglehart, Ronald F.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4, 991 - 1017.
- Inglehart, Ronald F.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년 논문의 확장 출판본.
- Kapuscinski, Afton N. & Kevin S. Masters (2010). “The current status of measures of spirituality: A critical review of scale development,”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2 (4): 191 - 205.
- Kotler, Philip (2010). *Marketing 3.0*. Hobke, New Jersey: John Wiley & Son, Inc. 안진환 옮김 (2010). 『마케팅 3.0』. 서울: 타임비즈.
- Kuyper, Abraham (1961).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Lewis, C. S. (1949). *The Weight of Glory*. New York: Macmillan. 홍종락 역 (2008). 『영광의 무게』. 서울: 홍성사.
- \_\_\_\_\_. (1947). *Miracles*. New York: Macmillan. 이종태 역 (2008). 『기적』. 서울: 홍성사.
- McGrath, Alister E. (1990). *The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2012). 『오픈 시크릿』. 서울: 복있는 사람.
- Noll, Mark (1995).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Grand Rapids: Eerdmans. 이승학 역 (1996).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 엠마오.
- Owen, John (1656).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 Packer, James I. (2009). *Rediscovering Holiness: Know the Fullness of Life with God*. Ventura: Regal.
- Palmer, Parker (1993). *J.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San Francisco: HarperOne. 이종태 역 (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Richard, Lucien J. (1974).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Press.
- Ryken, Leland (1995). *Redeeming the Time: A Christian Approach to Work and Leisure*. Grand Rapids: Baker Books.
- Sheldrake, Philip (2007). *A Brief History of Spirituality* (Malden, Oxford: Wiley-Blackwell.
- Stroudemire, John. D., M. Pavlov Batman, and A. Temple (1986). “Validation of a Holistic Living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58.
- Tart, Charles T. (1975). “Introduction.” in C. T. Tart, ed., *Transpersonal Psychologies*. New York: Haper and Row.
- Temple, William (1934). *Nature, Man and God*. Edinburgh: R. & R. Clark.
- Thiselton, Anthony C. (1995). *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 On Meaning, Manipulation, and Promise*. Grand Rapids: Eerdmans.
- Tillich, Paul (1959). *Theology o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Til, Cornelius. *The Defense of the Faith*, 신국원 역. (1985). 『변증학』. 서울: CLC.
- Waaijman, Kees (2002). *Spirituality: Forms, Foundations, Methods*. Leuven: Peeters.
- Weber, Max (1963). *The Sociolog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 Willard, Dallas (1998). *The Divine Conspiracy: Rediscovering Our Hidden Life in God*. San Francisco: Harper. 윤종석 역 (2000). 『하나님의 모략』. 서울: 복있는 사람.
- \_\_\_\_\_ (1999).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Understanding How God Changes Lives* (San Francisco: Haper Collins.
- \_\_\_\_\_ (2002). *Renovation of the Heart: Putting on the Character of Christ*.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윤종석 역 (2003). 『마음의 혁신』. 서울: 복있는 사람.
- \_\_\_\_\_ (2006). *The Great Omission: Rediscovering Jesus' Essential Teachings on Discipleship*. San Francisco: HarperCollins, 윤종석 역 (2007). 『잊혀진 제자도』. 서울: 복있는 사람.
- Wolterstorff, Nicholas (1980a). *Art in Action: Toward a Christian Aesthetics*. Grand Rapids: Eerdmans. 신국원 역 (2010). 『행동하는 예술』. 서울: IVP.
- \_\_\_\_\_ (1980b). *Works and Worlds of Art* (Oxford: Clarendon Press.
- Wuthnow, Robert (1998). *After Heaven: Spirituality in America since the 1950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황호찬 (2006). “기업과 돈과 영성”,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기업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ABSTRACT

### Reformed Christian Worldview and Spirituality Culture

Kuk-Won Shin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biblical perspective on spirituality culture in vogue today. The decline of modern rationalistic culture encourages various endeavors to search for a new foundation of culture. Active explorations are made in traditional religions as well as in psychology, sociology, management, and arts. Such spiritual recovery movements are desirable. However, superstitious, syncretistic tendency, and humanistic elements call for caution. This paper shows how the biblical spirituality differs from our spirituality culture. It also argues why a biblical discernment based on the scriptural understanding of spirituality is necessary in today's socio-cultural atmosphere.

Key words: spirituality, spirituality culture, religion, holistic, spiritual discernment, spiritual development

